

“한국 밀교연구 세계적 공유”

벨기에 폴 교수 ‘불교문화연구 초청강연회’서 주장



“국내-외 학자간 교류 부족 연구성과물 외국어 번역 필요”

“한국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응합되어 있는 밀교에 대한 연구를 빼놓을 수 없지만, 정작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국 밀교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다”

10여 년간 밀교를 연구해 온 반트 부르크 폴(켄트대·벨기에·사진) 교수는 16일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세미나실에서 열린 불교문화연구원의 ‘초청 강연회’에서, 한국에서의 밀교 연구와 그 성과물의 세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해 주목된다.

이날 ‘한국불교문화의 세계적 조명-서구학자가 본 한국의 밀교’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폴 교수는 “인도·중국·일본·티베트 등과 교류하며 발전한 한국의 밀교는 아시아의 밀교를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창구이지만, 서구에서는 아직까지 그 가치를 모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의 밀교 연구가 부족하고, 그 성과물이 해외에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폴 교수에 따르면, 그 동안의 연구 과정에서 접할 수 있었던 한국 밀교 관련 저술들은 <Die Religionen Koreas(한국의 종교)>(프리츠 포스·1977), <Korea: A Religious History(한국 종교역사)>(제임스 헌틀리 그레이슨·1989), <The Introduction of Buddhism to Korea(한국불교의 소개)>(차이신 유·1989), <The Assimilation of Buddhism in Korea(한국에서의 불교의 동화)>(루이스 랭카스터·1991), <Esoteric Buddhism in Korea(한국의 밀교)>(헨릭 서렌센·1993) 등 5권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밀교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90년대 초, 동국대·위

대·중앙승가대·진각종을 중심으로 한국 밀교에 대한 연구 성과를 쌓아가고 있지만, 일본·독일·티베트 등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국내·외 학자간 교류 역시 부족해 연구 성과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출간하는 후속 작업이 없어, 외국인 학자들에게 한국 밀교의 가치를 알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폴 교수는 “밀교문화연구 부족” ‘밀교학과 해체’ ‘밀교예술 전통 단절’ 등이 한국에서 밀교 연구를 가로막고 있다”며 “따라서 문헌과 의례 그리고 예술품에 대한 목록을 정리하고 밀교경전에 대해 해제 작업을 서두르는 한편 한국 사머니즘과 선불교에 녹아있는 밀교적 요소를 찾아 분석하는 것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며 한국에서의 밀교 연구의 방향을 제시했다. 불상이나 탱화를 조성하면 그 복잡으로 다라니를 끼워 넣고, 조석예불에서 ‘대신주, 대명주, 무상주, 무등주’라는 진언을 읊는다든지, 천도재를 올리는 법주는 여러 가지의 수인(手印)을 짓는 것과 같이, 한국불교에서 면면히 흐르고 있는 밀교적 요소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폴 교수는 결론에서 “한국 밀교는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폴 교수의 ‘한국불교문화의 세계적 조명-서구학자가 본 한국의 밀교’ 주제 강연을 40여 명의 국내 학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있는데, 이러한 성향은 한국불교의 현 모습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며 “이러한 한국 밀교가 세계에 알려진다면, 외국인 학자들이 한국불교, 나아가 아시아 밀교까지도 바로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트부르크 폴 교수는 일본, 중국, 티베트에서 10여 년간 밀교를 연구했고, 현재 벨기에 겐트대학 남·동아시아 문화와 언어학 학과장을 맡으며, 한국문화교류재단의 후원으로 한국밀교 관련 문헌을 조사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hia.com)

“한국불교 정체성 탐구 학자·스님 사견 치우쳐 혼란”

길희성 교수 주장

“지금까지의 한국불교 정체성에 대한 주장이나 조계종의 성격과 정체성을 둘러싼 여러 주장들은 객관적인 역사적 고찰에 입각한 것이기보다는 학자들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강했다”



선가의 전통을 따른 입제선에 얽매인 일부 스님과 학자들이 선교(禪敎) 융합이라는 한

길희성(서강대 종교학·사진) 교수가 <한국종교연구> 제2집에 ‘한국불교 정체성의 탐구’를 게재하고, “조계종 종조는 누구인가” ‘한국 불교를 통틀고 보아야 하는가’ ‘한국불교의 종파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등과 같은 한국불교 정체성을 묻는 제 연구들이 학자들의 이념에 치우쳐 혼란스럽다”고 지적해 주목된다. 길 교수에 따르면 한국불교의 최대 종파인 조계종의 정체성 문제는 곧 한국불교 자체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인 데 반해, 학계에서는 추상적인 논의로 일관해 한국불교의 실제 모습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불교학계는 조계종 법통을 놓고 ‘지눌 혹은 보우’ 스님이 라고 주장하는 두 진영으로 서로 양분되어 있는데, 서산대사 이후

국불교의 역사적 특성에 주목하지 않아 ‘불필요한 논쟁’에 말려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길 교수는 “그들의 주장을 학설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일부 스님과 학자들의 개인적인 신념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지 애매한 면이 없지 않다”며 “법통과 같은 한국불교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는 역사적 연구의 차원의 이념에 치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제선에만 주목해, 보우 스님 법통설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불교의 전통과 현실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길 교수는 “현 조계종이 자신의 성격을 순수 선종만으로 편협하게 정의하지 않는다면, 선을 위주로 하면서도 동아시아 불교 전통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위치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오종욱 기자

제주 월정사 불상 2기 도문화재 신청



제주 월정사 11일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신청한 목조보살입상(고려말 제작).

고려말과 조선 초기에 각각 제작된 불상 2기가 한꺼번에 제주도 문화재로 지정·신청됐다. 제주시 오라동 월정사(주지 지문)는 11일 고려말~조선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조보살입상과 조선 후기 것으로 보이는 흙으로 빚어 만든 니조여래좌상에 대해 각각 도유형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향나무로 만들어진 길이 78.5cm, 폭 20.5cm 크기의 목조보살입상은 머리에 화려한 금속재 보관을 썼으며, 상투는 원만하고 목에는 삼도를 두르고 있어 전체적으로 인자하면서도 근엄한 인상을 풍긴다. 또한 높이 59cm, 폭 24.5cm의 흙으로 조성된 니조(泥造)여래좌상은 머리 위에 높직한 육계가 있고 상투는 원만하나 경직되어 있다. 제일 곁에 입은 옷은 양어깨를 모두

덮은 통견이며 수인은 왼손의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고, 오른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걸쳐놓았다. 정영호 문화재위원(한국교원대 명예교수)은 “목조보살입상은 화려한 보관과 유려한 의문(衣紋), 목과 가슴 등에 늘어뜨린 장신구가 뛰어나다. 또 제주에서는 보기 드물게 진흙으로 빚어진 니조여래좌상은 상호 각 부분이 문헌이 상세하고, 단정하고 안정감 있는 자세 등을 볼 때 조선 후기에 조성된 불상으로는 수작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 두 불상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제주도 내 불상으로는 17세기에 조성된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제주도유형문화재 제16호)에 이어 두 번째다. 제주도에선 이밖에 불탐사 오층석탑(보물 제1187호·고려말)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hia.com)

학술단신

해방당시 제주 교적부 발견

해방당시부터 4·3 제주항쟁까지 제주에서 활동했던 스님들의 행적과 사찰연혁 등이 기록된 문헌자료가 발견됐다. 태고종 제주종무원(원장 수암)은 최근 문서보관실에서 해방당시 제주에서 활동했던 스님들의 행적, 수행 이력 등이 기록된 교적부와 이력서 등을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자료는 모두 5권으로 각각 A4 용지 60-70장 분량이며 당시 사찰의 규모와 역사를 비롯해 재산관리 내역 등을 보여주는 문헌도 함께 들어있다.

‘우란분재와 목련전승...’ 발간

우란분재와 목련전승에 대하여 그 실상과 문화사적 위상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우란분재와 목련전승의 문화사적 조명>이 발간됐다. 중앙인문연구원(원장 사재 등)이 2000년도 우란분재를 맞아 펴낸 이 학술지에는 ‘경전에 나타난 사후세계(조용길)’, ‘업과 윤회설의 재조명(김성환)’, ‘지장보살과 한국의 구원사상(이인혜)’, ‘장례식을 통해 본 한국인의 영혼관(김태곤)’ 등 한·중 불교학자들의 30여 편을 수록했다. (042)624-2626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티베트 여성회 친구

여성 지위와 역할 소개 다양

티베트 여성의 지위와 그 역할을 엿보고 싶다면 티베트 여성회(Friends of Tibetan Women's Association) 사이트를 ‘클릭’하면 된다. 티베트 여성회가 개설한 이 사이트는, 현재 일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무려 5천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여성회는 1959년 4월 12일 티베트 라사에서 중국의 티베트에 대한 무력 점령에 항거하기 위해 수천 명의 티베트 여성들이 모인 가운데 결성되었다. 당시 포탈라궁 밖에서 평화적인 항의 시위를 벌이던 수많은 여성들은 중국 군인들에 의해 야만적인 수모를 겪었으며 또한 상당수의 여성들은 재판도 없이 투옥되어 비참하게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그 뒤 1984년 해외에 망명중인 수많은 티베트 여성들에 의해 정식으로 재조직되었으며, 인도 및 네팔 등 해외에 36개 지원·지회를 두고 있다.

티베트 여성 불자들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여성회가 개설한 이 사이트에는 ‘유명한 여성 불자’ ‘여성 불자 캠페인’ ‘경전 속의 여성’ ‘여성 불자 수계식’ ‘부처님의 여성성’ 등의 메뉴가 개설되어 있다. ‘유명한 여성 불자’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불자의 이름과 작품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 불자 캠페인’은 학술·문화계의 여성 불자를 소개하고 있다. 또 ‘경전 속의 여성’은 담미디나 등 부처님의 여성 제자들 삶과 생애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성 제자들이 경전에서 보인 성격과 행동 등을 현대로 옮겨 놓고 소설처럼 새롭게 구성된 인물 평전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여성 불자 수계식’은 티베트 경전을 토대로 사미니계와 비구니계를 설명해 놓고 있으며, ‘부처님의 여성성’은 티베트 불교계의 여러 불상과 탱화에 나타난 여성상을 조명하고 부처님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님파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부처님으로 추앙받고 있는 에카자티를 비롯해 루푸라 등 28종의 불상이 소개된다. 에티카는 하나의 머리, 눈, 입, 가슴 등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다. 또한 ‘메일보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불자 네티즌들이 이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할 수도 있도록 했다. ‘비구니로서의 삶’ ‘티베트여성 보고서’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서도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사이트는 티베트·인도 및 해외 망명지에 있는 티베트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과 연대해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최근 티베트에서 해외로 망명한 비구니 스님들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교육·복지 프로그램 등이 열람할만한 정보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hia.com)

△http://www.fotwa.org/

담원 석해경 스님의 들뜬 내음 물씬한 사색과 수행이야기!

약간 삐딱하게 사는 것도 바로 사는 것이다

담원 석해경 스님의 들뜬 내음 물씬한 사색과 수행이야기!

올바름, 또는 선(善)하다는 관념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자유롭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절대적이라 믿고 의지하는 신념마저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그 눈이 삶의 깨달음을 주는 지혜의 눈인 것이다.

한세상 후회 없이 살면서 부처님 같이 크게 깨달아 달 그림자 뜨락을 쓸 듯, 자취 없이 적멸(寂滅)에 들 수 있다면 내 인생도 또한 정말 행복한 매무새라 할 것이다.

- 본문 중에서

값 7,000원 / 신국판 / 240쪽

경인방송 화제의 프로그램 『아침을 여는 선체조』 모습

마음으로 따라하는 무심행 禪체조

값 9,000원/신국판/304쪽

배규원 지음

선체조는 몸과 마음이 질병과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방법을 수련자에게 가르쳐주는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운동법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서 있을 정도의 힘만 있다면 자신의 체력에 알맞은 만큼의 운동량을 받아들여 몸과 마음을 진실되게 만들 수 있다. 선체조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달아나가는 수련법이다.

화제의 책 절친리 판매중